

2030 축산 · 수의 창업 아이디어, 별이 되다

고객홍보팀

10대부터 30대까지, 어리다 할 젊은이들이 창업을 이야기합니다. 계산기보다 열의와 행동이 앞섰던 탓에 경제성을 구체적으로 꼬집자 움찔하기도 하지만 열의로 빛나는 눈빛은 '안 되면 은행 금고라도 뚫을 듯' 형형히 빛납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소리가 더 귀를 파고드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축산 · 수의”. 이들이 창업을 이야기하는 산업 분야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축산은 점차 심화되는 노령화로 인한 우려가 사업 전반에 걸쳐 깊습니다. “젊은 축산”, 미래의 젊은 인재들과 함께하는 지속성장하는 축산업은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였죠.

이렇듯 누구나 인정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제1회 축산 · 수의 분야 취업 · 창업 박람회의 부대행사로 2016 축산 · 수의 분야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참가 대상은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접수기간은 약 2주. 주관 측에서는 참가작이 얼마나 들어올지 손에 땀을 쥐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시상식 단체 기념 사진

그런데 총 68팀 165명이 행사에 참가했습니다. 10대에서 30대 참가 대상 연령층 모두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람회 사무국은 서류심사를 통해 최종 4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3명의 1:1 로테이션 멘토링을 거쳐 참가 아이디어를 구체화 했습니다. 4시간여에 걸친 밀착 멘토링과 이어진 아이디어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각 팀의 제안 내용은 환골탈태했지요.

그리고 12일 박람회 현장에서 치러진 대망의 본선 PT 결과 최고상인 최우수상의 주인공은 축산 분야 '우유전문카페-밀크팜'을 주제로 한 건국대 김형엽·공도승, 한국산업기술대 박세진, 상지대 백승훈, 강원대 서영선 등의 대학연합팀 '밀크팜'이었습니다. '우유를 밖으로 꺼내자'는 목표를 향해 전공과 지식을 활용하여 우유 전문점 창업 모델을 구상했지요. 현장에 믹서와 우유, 과일 등 재료를 들고 와 음료 샘플까지 만드는 열의를 보였던 이들은 시상식에서 최종 호명되는 순간 크게 환호하며 한껏 기뻐했습니다.

우수상은 수의 분야 영양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맞춤 식단 및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 펫 헬스 매니저'를 주제로 내건 서울대 '투경스(김경보·이경문)'팀이 차지했습니다. 장려상은 2팀으로 흰 우유를 가공유처럼 느끼게 해주는 컵을 활용한 우유 소비 촉진 사업 '후아유??'를 제안한 공주대 '홍청망청(김예림·



최우수상 '밀크팜' 팀의 본선 PT 중

박혜성·이정아·이경용)팀, 식육부산물을 활용한 고령자 식육식품 개발 'Silver meal'을 주제로 발표한 건국대 '애노애육(愛老愛肉, 전은지·김이슬·홍철의)'팀이 선정됐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청년들이 창업아이디어를 냈다는 게 고무적"이라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으니 노력만 더하면 분명 경쟁력이 있다."고 평했습니다. "창업 아이디어로 멈추지 말고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아이디어로 더 구체화 시켜달라"며 "더 노력해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자"고도 했고요.

그럼, 이번 대회가 뜻깊은 수상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으로 2016 축산·수의 분야 청년층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이야기를 갈무리하겠습니다.



시상식에서 호명되자 크게 환호하는 최우수상 '밀크팜' 팀

최우수상 밀크팜

김형엽

밀크팜을 기획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유업 및 카페 시장에 대한 정보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현실적인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카페 창업주, 공간 디자이너, 목장주, 교수님들께 직접 연락을 드려 필요한 정보를 얻는 과정에서 자신감과 결단력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본선에 간신히 진출한 밀크팜이 최우수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섯 명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모두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박세진

다양한 조사를 하면서 흰 우유의 과잉공급이라는 사회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저자본 청년창업, 음료 전문점의 실태, 우유의 유통·포장기술 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교내에서 배우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스스로 논문이나 업계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경험하고 지식을 쌓는 과정도 값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수상 투경스 이번 축산·수의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저희 팀은 우수상을 받아 상금 2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 200만 원을 저희 '스마트 펫 헬스 매니저'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 특허 출원과 등록에 쓰기로 하였고, 현재 특허출원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 등록 준비와 함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소동물 영양학에 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가 자주 열려서 더 많은 청년층이 창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잘 지켜내어 꿈을 펼칠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장려상 흥청망청 정말 자세하게 조사했다고 생각했던 시장 조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멘토링을 다녀온 후 여러 조언을 토대로 더 많은 조사를 하여 발표 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발표를 하고 난 후, 심사위원님들의 조언에서도 배울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적인 현상, 상황, 그에 맞는 마케팅 전략이나 기술개발 등 여러 가치를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책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값진 경험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장려상 애노애육 이번 공모전을 진행하며 창업에 관한 멘토분들을 많이 만나 볼 수 있었습니다. 멘토/멘티 시간부터 발표 심사위원분들까지 여러 방면에 전문가인 분들을 만나 뵈고, 그분들이 저희의 아이디어와 기획서를 보고 조언을 해 주신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수정해야 할 사항들을 듣고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은 과연 사회에서 직접 활동하는 분들은 학교에서 지식만 배우던 우리들보다 훨씬 보는 시각이 넓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팀이 꽤 오랫동안 준비한 기획안을 검토하시고 문제점들은 순식간에 짚어 주시는 모습에 제가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것과 전공적인 지식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